

기고

조 제 춘 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주택(공동주택) 화재 사망률 높아

최근 일부지역에서 눈이 내리기도 하고, 한파특보가 발표되는 등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다. 이럴 때 일수록 난방기구 등 화기취급시설 사용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느 계절보다 화재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6년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전체화재에서 연평균 주택(공동주택)화재 발생률은 약 22%인 반면, 화재사망자 비율은 약 61%가 주택(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어, 우리들의 주거환경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주택(아파트)에서는 의류, 침구류 등 가연

성 물질이 산재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급격한 연소확대가 우려되고, 화재사고 아파트 대부분이 상층부로의 연소확대와 연기확산에 의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다.

또한, 화재전과를 막는 기능을 하는 발코니의 확장추세와 노후 주택(아파트) 내장재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재료로 되어있다는 점, 주차 공간부족으로 인한 소방활동 공간확보의 곤란, 소방시설 등 관리소홀로 인한 초기화재 진압실패, 전기·가스 등 화기취급 시설 사용 부주의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복도나 계단, 비상구 등에 통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놓지 말고,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하는 한편,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복보일러 등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이나 전기·가스 등 화기취급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자.

또한, 어린이 불장난 근절 등 예방교육을 시켜 화재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위치 및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하자. 특히 주방들이 가스렌지 위에 빨래 및 음식물 등을 올려놓고 잠시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외출시에는 반드시 가스불을 차단하도록 하자.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

우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고 입과 코를 물수건으로 가리고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하며, 무모하게 뛰어내리지 말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옥조의 물을 이용해 가구 등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에 물을 뿌려 두는 것도 화재확대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특히, 아파트 화재시 엘리베이터는 연기가 통하는 굴뚝의 역할을 하게 돼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금물이다.

아울러, 아파트 화재 시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옆집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실에 설치돼 있는 경량칸막이를 활용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치위치 및 사용법을 숙지해 두고 긴급대피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매년 겨울철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또한 크다. 우리집의 화재취약요인은 없는지,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관리는 적정인지 등 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주택(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社說

초중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당국 감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는 전체의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학교에서는 평균 3건 이상 지적사항이 나왔다.

교육부는 2015년 이후 초중고 감사결과를 분석해 최근발표한 결과,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는 학교명이 포함됐다. 2015년 이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은 학교는 830개교(7.99%)였고 나머지 9천562개교(92.0%)에서는 평균 3.26건씩 총 3만1천216건의 잘못이 지적됐다. 전체 학교 평균으로는 3.0건이 적발됐다. 사립학교는 학교당 평균 5.3건, 공립학교는 2.5건 지적당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전체 지적사항 48.1%(1만 5천21건)는 예산·회계와 관련됐다. 학교발전기금 부적정 운영, 보충수업·초과근무수당 이중지급, 운동부 후원회비 학교회계 미편입 등이 주로 지적됐다. 인사·복무

분야 지적사항은 전체의 15.0%(4천698건), 교무·학사 분야는 13.8%(4천236건), 시설·공사는 9.5%(2천981건)를 차지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개인 휴가를 연수로 처리, 기간제교사 채용 시 성별외 경력 조희 미실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구성·운영 소홀 등이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평가 관련 지적사항은 각각 전체의 7.5%(2천348건)와 5.5%(1천703건)였다. 학생부 관련 지적사항은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782건(33%)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일력에 실수가 있었던 경우 등 이밖에도 집단학폭에서 비위가 줄을 이었다.

교육부는 이같은 불합리한 초중고의 관리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학부모나 지역인사 등 외부위원 참여를 활성화 하는 등의 대책 등을 포함해 다양한 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소방차 전용구역 꼭! 비워주세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쯤 노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표시를 봤을 것이다. 소방차의 소방활동 공간은 화재, 폭발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이런 공간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이룰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는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신속한 초기 대응에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스포츠타워 화재와 올해 1월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9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8월 10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됐다.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

별 전면 혹은 후면에 6m×12m 크기로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록 법이 개정됐지만 신설된 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강제성보다 거주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협조가 더욱 절실하다.

전 소방관서에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을 앞두고 매년 겨울철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금부터라도 무심코 지나쳤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란 노란색 실선에 작은 관심을 보내 나로부터 시작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우리 공동체의 안전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가슴 따뜻한 겨울맞이가 됐으면 한다.

배영규 / 나주소방서 소방장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자동차 화재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화재로 인해 교통사고 등 2차 사고의 우려도 있어 위험성이 크다.

그렇다면 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자동차에는 수많은 전기 배선을 사용하고 있고 주행하다 보면 전선피복이 진동에 의해 절연이 약해질 수 있다. 절연이 약해지면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점검 시 배선의 이상유무도 함께 검사해 주는 것이 좋다.

둘째, 가급적 자동차 개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순정 부품이 아닌 비품을 사용할 경우 과부하에 의한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해 주행 중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오랜 시간 엔진룸 내부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엔진룸 주

변에 먼지가 쌓여 엔진룸의 뜨거운 온도에 의해 발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엔진룸 주변을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내부 청소도 주기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넷째, 엔진에서 나온 배기기관의 온도는 800~900도며 배기계통을 거치며 머플러를 통과할 때는 온도가 많이 낮아지지만, 머플러 보면 전선피복이 진동에 의해 절연이 높고 노후 상태에 따라 더 높은 온도까지도 오를 수 있다.

때문에 자동차를 수습이 우거진 곳이나 낙엽·종이류가 쌓여 있는 곳 위에서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지 않는다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정차 시 신경을 써야만 한다.

위 사항을 고려해 평소 정기적인 점검을 함으로써 자동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동차 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해 위급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희창 / 화순 동북안전센터 소방교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蓋 덮을 개 蓋 此 身 髮
此 이 차
身 몸 신
髮 터럭 발
▷ 뜻: 이 몸의 털은 대개 사람마다 없는 이가 없음.

湖南新聞 (Hubei Daily)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details.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featuring two women and the slogan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apped our positions?).